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청 전경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차관급 4인 부시장 체제로 책임행정·권역별 조정 강화

4실 7본부 24국 출범...행정효율 제고·조직개편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특별시 기구 현황 : 4실 7본부 24국(2·3급 담당관 5개 포함) 139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 행정기관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이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차관급 4명의 부시장(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며, 각각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해 통합 초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민주인권·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통합공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전담한다. 또,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림 분야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본부장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기존 양 시·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자치행정,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등의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조정

한다. 이를 통해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강점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치했다. 이는 통합 초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지침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1·2급 등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통합(1본부장, 2부분부장) 등 체계적인 조직 정비 내용을 포함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꾸려지는 첫 조직과 정원은 출범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기구 운영 체계를 갖춘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 시정 비전, 시민 및 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기아, HMGMA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 시작

기아 미국 법인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2일(화,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HMGMA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생산을 본격화했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HMGMA 최초의 기아 모델이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에 이어 세 번째로 HMGMA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다. 기념행사에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켈프(Brian P. Kemp),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판매법인장 윤승규 사장, HMGMA 법인장 허태양 전무,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 HMGMA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HMGMA에서 생산된 첫 번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에 실려 무대로 등장, HMGMA의 고도화된 자동화 역량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 라인업 합류로 HMGMA는 전기차·하이브리드를 아우르는 전동화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기아는 미국 시장을 위한 SUV 생산 및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전체 라인업의 전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기존 웨스트포인트 지역 기아 조지아 공장과 HMGMA의 생산 역량을 더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5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

보하게 된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켈프는 "2025년 생산 개시 이후 HMGMA는 조지아 출신 인재들로 구성된 우수한 팀을 구축했으며 이제 전국 고객을 위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차량을 생산하게 됐다"며 "이번 공동의 성공은 기아 미국법인, HMGMA, 지역사회, 그리고 조지아주 시민들과의 검증된 파트너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판

매법인장 윤승규 사장은 "메타플랜트는 기아가 조지아주에서 진행한 두 번째 대규모 투자로, 기아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서 조지아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나해 상품성 개선 모델을 공개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기아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메타플랜트 생산을 통해 기아의 미국 내 성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빈 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